서울마루 공공개입 2022 설계공모

2021년 출항, 2022년에도 지속되는 <서울마루 공공개입 2022>는 일종의 사전 실험 프로젝트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서울마루에서 진행된다.

'공공개입'의 현장인 서울마루는 지난해와는 판이한 역동적인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첫째는 팬데믹 시대가 저물며 폭발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도시 보행활동이며, 둘째는 이를 예견하고 준비라도 한 듯, 올해 후반 새로이 모습을 드러낼 거대 공공 도시공간 광화문 광장이다. 여기에 부가된 돌발 변수인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 오는 도시적 파급 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도시공간 속 예측불가한 변화의 소용돌이인 이곳, 서울마루에서만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적 '공공개입'의 잠재성을 탐색하고 드러내는 일은, 이 시점에 더욱 흥미롭고 동시에 긴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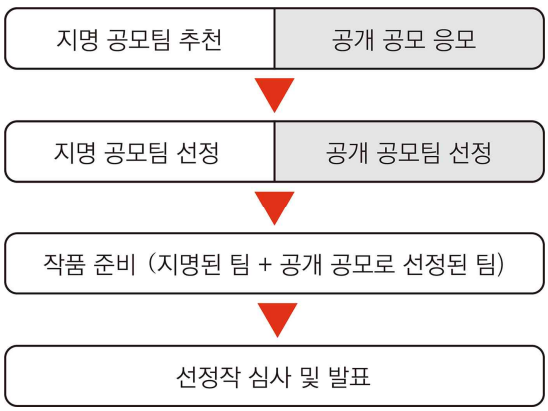
*마루란 전통적인 한국 주택에서 마루는 집의 중심이면서 모든 동선이 거쳐 가는 가장 넓은 공간이다. 취침, 노동, 여가, 독서활동 등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이자 접객, 연회 등 비일상 생활도 영위되었다.

2022. 5.
서울도시건축전시관

□ 공모개요

1. 공 모 명 : 서울마루 공공개입 2022
2. 주　　제 : 공공개입
3. 공모의 대상 및 범위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동측 입면 및 서울마루
   - 서울마루 유리 난간 및 엘리베이터실,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및 서울마루 진입 계단부
4. 주최 주관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5. 공모방식 : 혼합방식

(지명공모 4팀 + 공개공모 1~2팀)



6. 공개 공모 제안서 제출

- 기간 : 2022.5.12.(목)~5.26.(목) 17:00까지
- 제출서류

① 내용
- 참여 응모 건축가 설계사무소 소개자료
- '공공개입' 제안 아이디어

② 형식
- 스케치, 글 등으로 자유롭게 작성
- A4 가로 형식, 8페이지 이내로 구성
- PDF 파일로 제출 (최대 30MB)

③ 제출 서류 참고사항
- 짧은 공모기간을 감안하여 제출 서류의 완성도보다 공모 의도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
- 제안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경험을 잘 소개 및 설명하여 실행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

④ 공개 공모 제안서 심사 결과
- 5.27.(금) 비공개 심사로 진행
- 1-2개의 응모작 선정 및 당일 결과 발표

(6월 23일 목요일 최종 프레젠테이션 제출일까지 공개 공모 선정 건축가와 지명 건축가는 동일한 작업 기간과 참여비가 제공됩니다.)

⑤ 제출방법 : 'seoulmaruproject@gmail.com'으로 제안서 제출

7. 공개 공모 응모 건축가 요건

- 현재 대한민국에서 건축설계 관련 실무를 하고 있는 건축가로 지명 건축가와 동일한 조건

- 나이 및 경력 제한 없음

- 과거의 경험 및 실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축가

- 제한된 예산과 기간 내 기술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응모자

- 최종 제안 시 구체적인 기술적 개발과 세부적인 예산 활용 등을 보여주는 응모자

- 현장에 알맞은 다양한 도시 전문가, 조경/가구/산업/그래픽 디자이너 등 도시 건축적 제안을 위해 타전문가와 협력체를 구성하여 응모하는 형식도 가능

8. 공모 일정

- 공고일 : 2022.5.12.(목)
- 공개 공모 제안서 제출 : 2022.5.26.(목) 17:00까지
- 공개 공모 제안서심사 및 결과발표 : 2022.5.27.(금)
- 현장설명 : 2022.5.30.(월)
- 작품접수 : 2022.6.23.(목) 15:00까지
- 작품심사 : 2022.6.24.(금)
- 작품심의 : 2022.7월 진행
- 선정작 발표 : 2022.7월 중

9. 공모운영위원회

[공모운영위원장]
- 조민석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대표)

[공모운영위원]
- 강예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박희찬 (STUDIO HEECH)
- 이지회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한승재 (푸하하하프랜즈)

[지명 및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위원, 공모운영위원장이 참여한다.

[심사기준 및 방법]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최종 심사 제출물

(※지명 건축가 및 공개 공모 선정 건축가에 한함)

1. 제안 가이드라인

- 제작 예산 (설계비, 인건비 및 부가세 포함)

: 1억2천만원

- 제안 가능 영역

① 현장은 두 가지 대조적 외부 공간으로 구성

1. 서울시 보행자 친화적 노력으로 확장된 전시관 시설 전면의 보행공간

2. 시설 상부, 건물 후면의 지면과 연결되어 옥상 공원으로 기능 중인 공간

② 개입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중 한 장소를 선택 또는 둘 다 동시 선택 가능

(※ 첫째 전면 보행 공간은 서울 중심의 여유로워진 보행 공간이자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배려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어떠한 점유방식과 규모의 개입이 공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설득과 협의가 요구되는 장소이다. 다양한 도시적 가능성을 가진 전면 보행 공간에 제한적 조건을 이용 및 극복한 제안 -이동가능한 설치물 등- 을 기대한다.)

- 제작 기간: 선정작이 최종으로 결정되는 6월 24일(금)부터 약 90일 정도로, 준비 기간을 통해 9월 24일(예정) 시민에게 공개가 된다.

2. 발표자료 (필수)

- 발표시간 20분 내의 분량으로, 양식에 상관없이 구성하여 제출한다.
- 발표자료는 PDF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유투브 채널을 통한 공개 심사로 진행 예정.

3. 모형 또는 비디오 (선택)

- 모형 혹은 비디오도 추가로 제출 가능하다.
- 모형을 제작할 경우 축적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하며, 2m×2m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
- 비디오는 발표시간 20분에 포함되어 재생할 수 있어야 된다.

4. 공통사항

- 모든 도서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며 컬러 사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모든 도서에는 참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 특별하게 명기된 축척 이외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축척과 방위는 정확하게 표현한다.

- 도면에 표현된 건축물과 대지의 크기 등 이미지상의 효과를 위하여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상기사항의 위반은 모두 보고되어 심사위원회에서 탈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유의사항

- 제출도서를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하다.
- 저작권법에 따른 타인의 초상권, 출품작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및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제외, 수상취소 및 시상내역(상장, 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에게 있다.
- 주최 측은 입상작에 한하여 저작물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배포 및 가공·변형의 방법으로 출판, 전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향후 주최 측은 필요한 경우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심사 및 선정은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여 심사과정은 모두 녹화 및 자체 채널(Youtube)을 통해 생중계될 수 있다.
- 작품 접수량, 완성도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선작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공모 참가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발표심사 및 선정작 발표

1. 발표심사

- 심사는 2022년 6월 24일 (금)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발표자는 심사 당일, 따로 공지하는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작품설명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지 시간에 늦은 참가자는 공지 시간 이전에 주최 측에 미리 연락하고 심사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합의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면 마지막 순서로 설명을 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발표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 설명시간 2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발표자와 배석자는 공모공고일 이전 재직자 중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대표자 또는 실무자 권장) 3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을 명기한 재직증명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2. 선정자 관련

-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선정작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개별 연락한다.
- 선정작의 종류와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정작	1작품	상금 10,000,000원
참여작	4작품	상금 각 2,000,000원

- 선정작의 설치비로 상금 외에 120,000,000원 (부가세 포함)에 준하는 우선협상설계권을 갖는다. 해당 비용은 실비 정산하여 미사용금액에 대해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 상금에는 일체의 세금 등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며, 공동 응모의 경우는 대표자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 주최자는 선정자가 작품설치를 포기하거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선정을 하여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정자의 경우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반환된 상금을 기존 선정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후 주최자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수상 작품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작품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하게 된다.

3. 선정 후 설치 시 유의사항

- 작품 설치는 2022.9.24.(토)전에 설치완료되어야 한다.
- 작품 설계 및 설치 시, 설치 장소가 서울시 도심에 위치하여 있기에 도로 통제 및 대형장비 반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작품 설치로 인해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건축물에 하자 및 훼손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훼손 사항 발생 시,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설계 지침

1. 공모 목적

- 모두에게 열린 공간 조성 / Public open space
  - 남녀노소, 시간과 계절의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하고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 놀이와 휴식이 가능한 곳으로서의 서울마루를 조성한다.
  - 기존의 진입부를 최대한 활용, 쉽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다양한 도시적 행위(Urban Activity)가 가능한 공간 / Urban Platform
  - 강한 햇빛에도 도시적 활동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늘 공간 조성한다.
  - 또 다른 하나의 광장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며 다양한 문화 예술 행위 및 휴식과 놀이, 인근 직장인들과 거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2. 설계 요건 및 필수 기능

- 서울마루에서 가능한 다양한 활동(Urban Activity)의 요구
  - 서울마루는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또 다른 하나의 광장이다.
  - 이 광장에서는 세대를 막론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그 누구나 휴식과 놀이, 퍼포먼스와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등을 담아내고자 한다.
  - 또한, 도심 광장으로서의 역할뿐 만 아니라, 때로는 특별한 기간 또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도심에서는 하기 힘든 독특한 이벤트 등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맥락과 기존 대지에 대한 장소성 반영 / 랜드마크 (Landmark)에 대한 다른 방향 제시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건축적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시청, 시청광장, 덕수궁과 성공회성당, 서울시의회, 프레스센터 등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아이디어 제시한다.
  - 구조물의 제작, 설치뿐 만이 아닌 바닥, 입면(파사드), 공간 등을 포함한 입체적 계획에서부터 마감재료와 그래픽, 텍스트에 이르는 세부사항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디자인의 제시한다.
- 한시적이지만 유연한 공간 / Flexible, Temporary
  - 특정한 시기, 주변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다채로운 도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되 한시적일 수 있음을 고려한다.
  - 폭우, 태풍 등 특수계절환경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마루 유리 난간, 엘리베이터실 등에 캘리그라피, 디자인 패턴 등 활용 가능)

※ 문의사항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02-736-8050

※ 공모 변경 사항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 ‘https://sca.seoul.go.kr/seoulhour/site/urbanArch/home’를 통해 공지

□ 부록

- 세종대로의 역사적 가치

  • 세종대로는 조선의 건국에서 대한제국의 출범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심장부
  • 광화문에서 시작된 조선왕조의 정치적 상징이었던 육조대로가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황토현(현 광화문 네거리)을 넘어 현 서울광장까지 연결되면서, 대한문 앞은 근대 한국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중심이 됨
  • 세종대로는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가로가 되었고, 4.19혁명과 5.16쿠데타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곳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장소적 가치

  • (구) 국세청 별관은 조선의 서학당길과 대한제국의 신작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구) 국세청 별관 대지를 광화문에서 시청을 연결하는 건축유산과 다양한 시민활동을 담고 있는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담는 장소
  • 역사 문화, 공공행정, 업무 및 금융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의 중심부이자 광화문-서울시청-숭례문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변에 위치
  • 역사의 현장을 짓누르던 건축물을 지우고, 잊혀졌던 역사의 현장을 드러냄으로써, 역사가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소
  • 서울의 문화 경관적 가치를 계승하며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반영된 공간 조성
  • 문화유산과의 연계를 통한 역사적 장소성의 회복과 시민의 미래적인 활용 고려
  • 대상지 동측으로 서울시의 업무 중심인 서울시청이 위치하고 있으며, 프레스센터, SFC 등 업무·금융시설이 밀집
  • 대상지 주변으로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숭례문 등 역사적인 문화재가 위치하며, 성공회 서울성당, 서울특별시 의회, 정동교회 등 서울의 근·현대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재 산재
  • 대상지와 인접한 주변의 성공회 서울성당, 서울시의회 등을 고려한 인접부 및 진출입 계획을 한다. 성공회 성당과 연계된 기존 진출입 기능은 유지하며, 성당의 주차장과 인접한 경계 부분에 외부공간의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계획

□ 현장사진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